



BEST신년 합동 축하회를 개최

자동차 재활용 부품 유통 4 단체로 결성하는 BEST 리사이클러즈 얼라이언스는 1월 28일, 도내 회장에서 신년 합동 축하회를 개최하였다. 동 얼라이언스는 가맹단체에서의 상호 부품 유통과 공동 교육 연수를 실시하는 등, 가맹 단체 간의 긴밀한 연계가 활발해지고 있다. 지난해부터 실시되는 사업 부제 체제 하에서의 활동보고에서는, 리빌트 사업의 차기 매출을 25%증가로 할을내걸고, 판매 강화를 도모할 방침을 표명했다.

동시에 발표한 그룹 간의 2014년 상호 유통 실적 금액은 8.81%증가의 약 23억 7천만 원으로, 발족 이래 8년 연속으로 전년 실적을 웃돌았다. 강화 방침을 내세운 리빌트사업에서는 신품부품과의 조합이나 신품부품의 취급처와의 연계 강화를 도모하여 목표 달성을 꾀한다.

사업 보고서에서는 이 외에, 교육 연수, 물류, 홍보 등 각가의 사업에서의 활동 상황이나 향후의 전개를 기재하였다. 교육 연수 분야에서는, 지난해 2회 실시한 '자동차 기

술 기업 연수회'를 올해도 개최한다. 3월에 첫 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내용은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취급 방법 등을 예정하지만, 높은 기술 대응력을 습득하기 위

해, 폭넓은 강좌 내용을 검토한다. 홍보활동에서는, 언론 매체에 대한 광고 게재나 홈페이지 상에서의 계몽, 동 얼라이언스 정보지 발행을 계속해 이어간다.

부품 유통 사업에서는,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자동차 리사이클 부품 로지스틱 연구회' (로지연)에서의 논의 내용 등을, 회원 단위로 공유화하는 것을 추진한다.

BEST에서는, 대표자 회의의 계속적인 개최나 단체 교섭 사안의 구현화를 위해 노력해 나간다. 또한, 여성 사원의 힘을 활용하는 대처로 실시하고 있는 'BEST여자회'를 올해도 열 방침으로, 조직 전체의 힘을 강화할 방침이다.

일간 자동차신문 2015년 2월 5일(목)

재활용 현황과 과제 -상-

일간 자동차신문사는 1월 29일, 도쿄 도내에서 자동차 재활용 사업에 대해 논의하는 '제1회 자동차 리사이클·서밋'을 개최하였다. 서밋에서는, 자동차 재활용 관련 단체인 16단체가 현재의 업계에 있어 과제와 그 대응책을 각각 논의하였으며, 향후 업계의 방향성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서밋의 마지막으로는 '서밋 선언'을 채택하여, 일본의 '순환형 사회 형성'에 일치 단결하여 대처해 나가기로 합의하

C02 삭감 수치 (수퍼라인 시스템)

재사용부품 사용으로
C02 삭감 효과 참고치
2015년1월

3, 148t

※일반, 중·대형을 포함한 자동차 수리 시, 신품부품을 사용하여 발생하는 C02 배출량과재활용부품을 사용하여 발생하는 C02 배출량의 차이가 C02 삭감 수치가 됩니다.

일반사단법인 일본자동차리사이클부품 협의회와 와세다대학 환경종합센터가 LCA (전생애 환경평가기법 (life cycle assessment))라는 기본 생각에 근거하여 공동 개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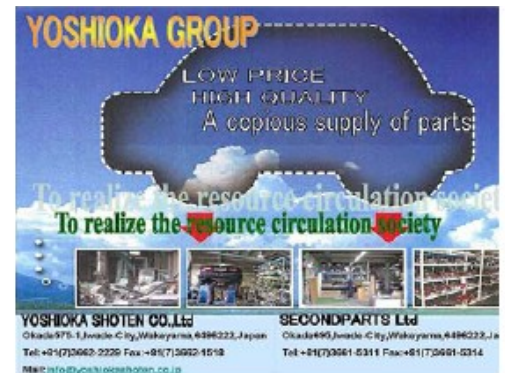
「그린포인트시스템」으로부터 참조

였다. 재활용단체 대표가 한자리에 모여 논의한다는 첫 시도가 된 이번 서밋. 글로벌화와 타 업계에 대한 어필 등 업계의 경계를 넘어서의 대응과, 재활용부품 보급 확대를 위한 노력, 과제라는 업계내에서의 현황에 대한 언급이 중심이 되었다. 자동차 리사이클링 시행 10년째를 맞이하여, 업계는 기로에 서 있다.

논의에 앞서, 기조 강연으로 경제산업성 제 조산업국 자동차와 자동차 리사이클링실의 가나자와 마코토(金澤 信)실장과 환경성 폐기물·리사이클대책부 기획과 리사이클추진실의 쇼지 마사노리 (庄子真憲)실장이 정부로서의 대응책과 업계의 현재 상황 인식에 대해 언급했다. 가나자와 실장은 지금까지 자동차 재

Continued on Page 2 —





인터뷰 경제산업성 자동차과 자동차 리사이클실 가나자와 마코토 실장

경제산업성은 자동차 재활용 부품의 적정한 시장 확대를 목표로 하는 대응을, 업계와 협력하며 전개하고 있다. 지난해 재활용 부품의 규격 책정을 위한 연구회에서 일정한 방향을 정해, 해체 사업자의 경영 실태 조사도 마무리되었다. 제조산업국 자동차과의 가나자와 마코토(金澤 信) 자동차 리사이클실장에게, 재활용부품 업계의 현재 상황과 향후에 대해 물었다.

- 자동차 재활용의 현재 상황은

“자동차 리사이클법이 시행되고 약 10년이 되는데, 관계자 여러분의 노력의 결과 ‘일본 모델’ 로써 꽤 정밀도가 높은 것이 되어 가고 있다. 또한, 제도로써 투명성이 높으며, 가시화에 응답할 수 있는 형태로 대응하고 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의 평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한편, 새로운 과제도 발생하고 있다는 것도 현실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 자동차 리사이클법 재검토의 합동 회의도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아직 (합동회의의 정리는) 앞으로의 논의이겠지만, 3R의 추진·질의 향상을 위한 위원, 당사자인 분들께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참가해 주시고 있다. 우리들도 정밀한

해체와 자원의 유효 활용이라는 관점에서, 나아가 개선해야 할 점은 있다고 생각한다. 제도의 안정적·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도 지자체와 자동차 리사이클 촉진센터를 포함하여, 향후 논의를 진행시키고 싶다.”

-HV와 FCV 등 차세대 자동차에 대한 대응은

“차세대 자동차의 대응에 대해서는, FCV로 대표되는 새로운 소재도 채용되고 있어, 과제가 되고 있다. 어떠한 단계에서 어떠한 일을 해 나가야 하는가를, 심의회에서도 충분히 논의해 갈 필요가 있다. FCV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보급을 하는 전 단계, 보급 단계에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를 제조업체를 포함하여 공유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자체뿐만이 아닌 관계 부처도 더불어 협력해 가며 움직일 것이라 생각한다. 재활용 업계에서도 자동차 리사이클사(士) 제도가 있기에, 교육의 질을 높여, 투명한 사업자가 업계에 대응해 주시는 것은, 우리들도 연락을 취하기 쉬운 상황으로 이어지리라고 생각한다.”

- 재활용 부품의 규격 만들기 연구회에서 논의가 정리되었다.

“작년 8월에 연구회의의 중간보고가 정리되었다. 현재는 업계의 자율 노력으로써, 우리는 측면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좀처럼 전례가 있는 상황이 아니기에, 어떠한 형태로 해야 하는가 하고 생각하면, 통상적인 신상품과는 다른 어려운 점도 있다. 우리들로서도 가능한 한 응원하고 싶다. 재활용부품의 이용 촉진으로, 사용자에게 정보 제공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보다

안심·안전으로 이어진다는 의미로 중요한 역할을 맡을 것으로 생각한다.”

- 단체, 각 회사의 해외 진출이 눈에 띈다

“지금까지 몇 번이나 특정 국가로부터 문의가 있어, 협력하거나 소개를 해 왔다. 업계 관계분들은 그것과는 달리, 중국이나 중동에 투자, 해외규격 책정 등을 전개하며, 의욕적으로 다양한 무대에서 움직이고 있다. 우리 경제산업성으로서도 일본 자동차가 보급되고 있는 ASEAN에서, 재활용에 대한 과제 등의 정보 교환을 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다. ASEAN 안에서 법 정비가 진행되고 있는 나라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상대국이 주체적이지만, 일본 등 선진국의 경험이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시장 정비가 점차적으로 진행되어, 일본 사업자가 해외에서 자동차 재활용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전체 재활용의 질 향상으로도 이어진다. 업계에 있어서도, (해외에 대해) 보다 관심을 가질 시기가 되지 않았나 싶다.”

- 업계 과제는

“예전부터 노력하고 있는 점이지만, 사업자간에 그치지 않고 최종 사용자에게의 정보 제공을 더욱 추진해 가고 싶다. 인수사업자 관계에서도 정확한 정보 제공을 하는 것은 연구해 볼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재활용의 질 향상은 향후 심의회에서 논의가 될 것이라 여긴다.”

일간 자동차신문 2015년 1월 15일(목)

-Continued from Page 1

활용사업을 되돌아보며 “자동차 산업은 일본의 주도산업이다.” 라고 한 후, “(재활용사업은)지금까지 주목을 받아 왔느냐고 한다면 실은 아직 멀었다고 할 수 있다.” 라고 지적. “각 회사·그룹의 대응책은 중요하지만, 업계가 하나가 되어 대처할 과제가 많다.” 라고 강조하였다.

쇼지 실장은 환경성으로서 재활용에 대한 대응책에 대해 소개하며, “재사용·폐기물의 감량화의 추진, 재활용의 고도화(재활용의)양에서 질로”의 3가지를 중점적으로 추진 중임을 언급하였다.

서밋에서의 논의는, ‘업계에서의 3R을 더욱 촉진’ 자동차 재활용부품의 보급 확대를 위해’ 글로벌화가 진행되는 자동차 재활용 사업’ 라고 하는3개의 커다란 테마에 대해 단체 대표가 각자의 의견을 말하였다.

현재, 업계의 고민거리가 되고 있는 것은

사용후 자동차의 입고 확보이다. “무리한 가격으로 입찰해서까지, 오토옥션(AA)에서 차량을 사야 하는 상황이 있다.” (NGP일본 자동차 리사이클사업 협동조합·하세가와 도시히코(長谷川利彦) 이사장), “부품 수거를 위한 차량의 부족이 이제부터 현저히 나타나게 될 것이며, 더욱 힘들어질 것이다.” (빅웨이브·하토리 아츠시(服部厚司) 사장)이라는, 이른바 ‘총알 부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단체 대표로부터 높아지고 있다.

사용후 자동차의 확보는 최근, 재활용사업자에게 있어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일본ELV 리사이클기구의 가와무라 니시오(河村二四夫) 대표이사는 “14년을 넘는 자연적인 차량이 중고차로 많이 수출되고 있다. 업계가 운영되기 위해서라도 일정한 제동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고 지적한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직 찾지 못하고 있지만, “자동차 리사이클법에서 사용후 자동차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지만, 유명무실화되고 있다. 자구 노

력만 있을 뿐이다.” (TCR그룹·오하시 다케히코(大橋岳彦) 회장), “높은 가격으로 AA의 차량을 구입하여, 높은 단가로 부품을 판매. 이러한 무사도와 같은 마음가짐이 필요하지 않을까.” (일본파트협회·하야카와 이치지(早川一之) 회장)라며 현재 상황을 수용하여 기업이 노력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게 들리고 있다. 피할 수 없는 문제인 만큼, 각 단체가 정면에서 부딪쳐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일간 자동차신문 2015년 2월 5일(목)

KOBELCO

コベルコが提案する 新しい考え方

1979年世界初の自動車解体機の発売以来、
30年以上にわたって金属リサイクル分野で常にリードし、
環境負荷の低減に貢献してきました。

マルチ解体機

使用済み自動車の解体以外にも廃家電などの金属製機器の解体および
さまざまな複合廃棄物の解体・分別作業が可能です。



コベルコ建機株式会社
<http://www.kobelco-kenki.co.jp/>

KOBELCO

New ideas come from KOBELCO

Since launching the world's first car-dismantling machine in 1979,
KOBELCO has continued to take the lead in the metals recycling industry.
For over 30 years, we have contributed to reducing environmental impact.

Multi-Dismantling Machine

In addition to dismantling end-of-life cars,
Multi-Dismantling Machine can break down
various metal products and equipment
such as used household appliances and
can separate and sort various composite
material wastes.

Car-Dismantling Machine

Car-Dismantling Machine efficiently
separates and sorts raw materials in
end-of-life cars and is able to recover
rare earth metals.



KOBELCO CONSTRUCTION MACHINERY EUROPE B.V.
<http://www.kobelco-europe.com/>
KOBELCO CONSTRUCTION MACHINERY U.S.A. INC.
<http://www.kobelco-usa.com/>

KOBELCO

新构想源于神钢

1979年世界第一台汽车拆除机发售以来，
30多年来一直引领金属再生领域，
在降低对环境压力方面功不可没。

多功能拆除机

不仅可以拆除不再使用的汽车，还可以
拆除废家电等金属制机器以及各种复合
废弃物品的拆除、分类作业。

汽车拆除机

可快速进行报废汽车内素材的分类作业，
能够回收稀金属资源。



成都神鋼工程机械(集团)有限公司
<http://www.kobelco-jianji.com/>

KOBELCO

새로운 발상은 KOBELCO에서

1979년 세계 최초로 자동차 해체기를 출시한 이래,
30여 년에 걸쳐 금속 재활용 분야에서 항상 앞장서서
환경 부하 저감에 공헌해 왔습니다.

멀티 해체기

용도 폐기된 자동차의 해체 외에도 폐가전제품 등 금속제 기기의
해체 및 다양한 복합 폐기물의 해체·분리작업이 가능합니다.



(주)삼정건설기계
<http://www.samjung-kenki.co.kr/>



Go Go Japan Industry (M) Sdn Bhd

Lot 15, Jalan 4/32A,

Mukim Batu Industrial Area, 6½ Mile Off Jalan Kepong

52000 Kuala Lumpur, Malaysia.

Tel : 03-62415258 Fax : 03-624152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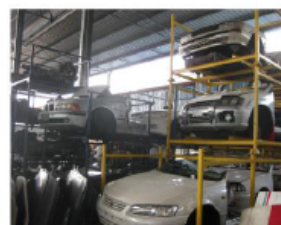
高品質
High Quality
品质高超



低価格
Reasonable Price
价格合理



迅速なデリバリー
Speedy Delivery
交货迅速



優れたサービス
Excellent Service
服务卓越



For Enquiry, Please Contact / 询问洽购, 请联络 : 03-6241 5258

< Parts Supplying Fully Back Up by HIDA TEC Japan >

Tel : 025-539-1515

Email: narc-2001@helen.ocn.ne.jp

Tel : 025-274-1516

Email: narc-2004@ace.ocn.ne.jp



JOUETSU Branch



KAETSU Branch